



배종훈의 명상가툼

여유로 이르는 길

저녁 8시 전에는 경내로 들어와야 한단 종무소 담당자의 목소리가 계속 귓속에 있는 것 같았다. 퇴근을 하고 서울을 출발해 빠듯하게 달려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저녁 먹을 시간도 부족해 달리는 차 안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토요일에 편하게 올 걸 그랬나하는 후회가 밤 8시가 다가오면서 더욱 커졌다.

하지만 그 조바심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에 들어서면서, 사위가 어둠에 들면서 조금씩 사라졌다. 속도를 낼 수 없는 1차선 국도 때문인지, 자동차 전조등에 의지해 나아가야 하는 어둠 때문인지는 몰라도 차라리 마음이 편해졌다. 창문을 내리고 팔을 내밀어 바람을 가르며 굽이굽이 도니 어느새 사찰 입구에 들어섰다. 시계는 저녁 7시 46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우승미의 불교창작동화

심술긋은 겁쟁이와 한심한 도깨비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엄마는 오전에 일하러 나가서 밤 11시가 되어야 집에 돌아왔다. 외할머니가 쓰던 브라운관이 불룩한 텔레비전이 정민이의 유일한 친구였다. 정민이는 몇 개 되지 않는 채널을 돌리며 멍하니 앉아 있다가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잠이 들곤 했다.

무당집에 갈지 말지, 정민이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다. 주희 말대로 아이들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세계 최고에 빛나는 겁쟁이들이니까. 도깨비 같은 것이 정말 있을까. 호기심이 생기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도깨비가 있을 것 같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었다. 정민이는 문방구 아저씨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문방구 아저씨는 가게 문을 닫으려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형광등 빛을 받은 아저씨의 민머리가 반짝 빛났다. 그리고 보니 아저씨의 머리는 어딘지 이상했다. 보통 대머리인 사람들은 이마부터 벗어지고 머리숱이 없는데, 아저씨의 머리는 숱이 많았고 머리 중앙에서 살짝 빛이 구멍이 나 있었다. 뺨보자를 비스듬히 기울여 쓴 것처럼.

“도깨비가 아저씨 머리에 불을 놓았다던데 사실이예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그때 내 나이가 일곱 살이었거든. 여기 이 사진을 봐라.”

아저씨가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다. “이때가 여섯 살 때. 머리에 구멍이 없지 않니. 여기 이 사진은 일곱 살 때야. 머리가 다 타버렸지. 머리에서 피란 불이 활활 타올랐어. 차가운 불

이었지. 화상을 입지는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머리칼만 타버렸고, 그 자리에서 다시는 머리칼이 나지 않았어.”

“그 집에 아직 도깨비가 살아요?”

“아마 그럴 거다. 내 머리에 불을 놓은 후에 우리 할머니가 도깨비를 단팔나무에 꿰뚫어 넣어놓은 이사를 나왔지. 그 도깨비가 처음부터 그렇게 미쳐 날뛰었던 건 아니란다. 장난치는 걸 무척 좋아하긴 했지만, 심술이 나면 그저 그릇이나 깨먹고 술뚜껑을 천장에 붙여 놓는 정도였지. 어린 시절에 도깨비는 내 유일한 친구였어. 생긴 건 우락부락해도 마음이 따뜻한 친구였지. 어느 날엔가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멧돼지를 잡았는데, 돼지 피가 떨어진 줄 모르고 아버지가 밧자루로 길바닥을 쓸었지. 그 도깨비는 밧자루의 정령이었거든. 밧자루에 피가 묻으면 도깨비가 발광이 나지, 미쳐 날뛰는 도깨비를 무당이었던 할머니도 어쩌지 못하고 더는 해코지나 못 하게 나무에 붙잡아 매어둔 거야.”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문방구 아저씨가 등 뒤에서 말했다.

“도깨비를 만나거든 절대 위로 쳐다보지 마라. 도깨비는 우리가 보는 만큼 크기가 커진단다. 아래만 보고 있으면 눈높이만큼 작아지지. 조심해라. 이 세상에 미친 도깨비만큼 무서운 존재는 없단다.”

무당집으로 가는 길엔 가로등이 없었다. 어두운 길 위에 희미한 달빛이 어롱졌다. 뻐이 뻐이 밤새가 울었다. 정민이는 무언가 시커멓게 흔들리



그림 · 강병호

는 것을 보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가 그제 자기 그림자인 걸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어디선가 스스스스 바람 소리가 들렸다.

나무 대문을 밀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소리가 끼이익 하고 크게 울렸다. 재민이 녀석이 말한 나무에 빗자루 같은 건 묶여있지 않았다. 알록달록한 전 조각리만 길게 늘어져 있었다.

“어이, 뭘 그렇게 기웃거리는 거야?”

뒤를 돌아보니 강아지만 한 작은 물체가 하나 밖에 없는 발로 퐁퐁 튀어나왔다. 정민이는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며 피식 웃음이 나왔다.

“네가 그 꼬마 도깨비니?”

달빛 속에 서 있는 도깨비는 짙은 초록색 피부에 더부룩한 머리칼 사이로 작고 귀여운 뺨이 뽀족 돋아나 있었다. 크고 둥근 눈은 맑게 반짝였고, 입 밖으로 아무렇게나 삐죽삐죽 뺨은 뺀가 무척 귀여웠다.

“들던 거랑 다르게 정말 귀엽게 생겼다. 너.”

“뭘? 내가 귀엽다고?”

도깨비는 퐁퐁 튀어 나무 위로 올라갔다. 정민이는 도깨비를 따라 위로 쳐다봤다. 그때였다. 도깨비가 점점 커지더니 나무만 해졌다. 귀여워 보였던 이빨은 끔찍해졌고, 부리부리한 눈이 피란 불을 내뿜으며 이글거렸다. 도깨비는 흥족한 입을 벌려 크야아 하고 산짐승 같은 소리를 냈다.

정민이는 그제야 도깨비를 올려다보지 말라던 문방구 아저씨의 충고를 떠올렸다. 정민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뭘야? 너 우는 거냐? 헛, 순 겁쟁이었잖아?”

“그게 아니야.”

정민이가 쏘아붙였다. “그럼 왜 우는 건데?”

사실 정민이도 이유를 몰랐다. 가슴 속에 갇혀 있던 답답한 것들이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고, 한 번 터져 나온 감정은 물밀 듯이 자꾸만 쏟아졌다.

“난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싶어. 그런데 이제 서울엔 우리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빠도 없어. 내 장난감엔 빨간 딱지 같은 걸 붙이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내 장난감을 모두 버리고 왔어. 난 여기가 정말 싫어. 엄마는 매일 한숨 쉬다가 신경질만 부리고, 뱀새나는 콩나물이랑 시금치도 지겨워. 여기에는 피자도 없고, 치킨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 그리고 난 친구도 없어. 모두 나보고 심술쟁이래. 이 세상에 내 편은 한 명도 없어. 난…… 정말…… 외로워.”

정민이가 우는 사이 도깨비는 점점 작아져서 정민이만 해졌다. 도깨비는 초록색 팔을 뻗어 정민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정민이의 어깨를 톡톡툰 두드렸다.

“원한다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밤이 새도록 그치지 않을 것 같았던 울음은 점차 잦아들었다. 정민이는 고개를 돌려 도깨비를 봤다. 도깨비는 울고 있었다.

“외로운 게 어떤 건지 잘 알아. 오랫동안 난 여기에서 혼자 지냈어. 무당 할머니가 나를 이 나무에 묶어두고 떠나면서 말했어. 피가 묻어 미친 도깨비에게는 약이 없단다. 비바람에 피가 씻기길 기다리는 수밖에. 때가 되면 다시 와 풀어주마.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야.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 영원히. 도깨비 친구들도 이곳엔 오지 않아. 사실 난 엄청나게 한심한 도깨비거든.”

정민이는 어깨 위에 놓여 있는 도깨비의 손을 잡았다. 거칠거칠한 손에서 점차 따뜻한 기운이 배어 나왔다. 정민이는 빙긋이 웃었다.

“원한다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계속>

특별할인 30%

제품의 유형 : 액상 추출차
내 용 량 : 100ml 30포(1Box)
일제로 및 일당
양배추 720g(국산), 브로콜리 1.200g(국산)
당 근 120g(국산), 표고버섯 1.200g(국산)
무 1.000g(국산), 후 우 199g(국산)
사 과 300g(국산)

양배추 & 야채수
Cabbage & Vegetable

특별할인 39,000
정상가격 56,000

양배추 & 야채수
백반석 향아리 중탕가공

100% 국내산 양배추와 야채수를 엄선하여 자연의 맛 그대로 정성을 다해 추출하였습니다.

건강식품의 명가
미성자연농산

주문전화 : 02_897_2613 휴대전화 : 010_6661_8709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는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

기도치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부처님은 약 3천년 전부터 기도 치료를 가르쳐주신 大醫王이십니다.

● 캐나다에서 한의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석영창님은 그의 저서에서 “불교도들이 질병치료를 못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 위 2권의 책은 기도치료의 이론과 실제 사례를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기도치료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도한 서적입니다.

● 많은 불자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포교와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치료법 230P 값 19,300원
기도치료학 550P 값 24,300원

■ 주 소 : 경남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243-115
■ 상담 및 책구입 : 010-2093-3385 / 011-557-2773
fax : 0303-0958-4568
■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석)
352-0943-7979-03 농협(정보석)
(책은 입금 확인후 택배비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